

4

세계로 수출하는 서울교통카드 시스템

백성현 도시교통본부 주무관 bsh7788@seoul.go.kr
서울시

서울의 면적은 605km²에 약 1,000만명이 살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에는 전체인구의 약 49%가 집중되어있으며 하루 교통량은 서울 3,200만명, 수도권 5,300만 명에 달한다. 한편 서울의 도로 인프라는 8,148km, 도시철도 433km, BRT 115km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300만 대, 노선버스 9,400여대, 택시 72,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이 거대도시 서울의 교통에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급속한 도시화 성장과정에서 축적된 정책 노하우와 발전경험, 기술을 최근 도시화 과정을 겪으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도시들에 공유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서울은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발전을 이룬 도시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한 선진도시들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서울의 도시 성장 노하우는 개도국의 롤 모델(role model)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1. 개요

서울시의 면적은 605km²이며 약 1,000만명이 살고 있다.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약 49%가 집중되어있으며 하루 교통 트립수는 서울 3,200만 트립, 수도권 5,300만 트립에 달한다. 한편 서울시에 있는 도로 기반시설은 총 길이 8,148km, 도시철도 연장길이는 433km, 간선 급행버스(Bus Rapid Transit)설치 구간은 115km이며, 차량 등록대수는 승용차 300만 대, 노선버스 9,400여 대, 택시 72,000여 대에 이르고 있다.

이 거대도시 서울의 교통에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급속한 도시화 성장과정에서 축적된 정책 노하우와 발전경험, 기술을 최근 도시화 과정을 겪으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도시와 공유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서울은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발전을 이룬 도시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한 선진도시들과는 차별화 되며 이러한 서울의 도시 성장 노하우는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role model)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브라질 연방특구와 경제, 교통 등 서울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었다. 이를 위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그넬로 케이로스 브라질 연방특구 주지사를 만나 상호우호교류협력(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은 서울시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대중교통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브라질 연방특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함께 참석한 오달론 국제협력과장은 “브라질리아는 승용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대중교통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버스를 추가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롤모델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과 전자정부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실제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서울시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이 서울시는 세계최고 수준의 주요정책 및 기술을 개발국에 전수하는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력진출 분야는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상수도 등이 있으며 본 장에서는 교통부문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2. 서울시 우수정책에 대한 해외의 요구

2004년 실시된 서울의 교통개혁은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서울 대중교통 개혁당시 롤 모델 중 하나였던 콜롬비아 보고타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진출하였고 미국, 인도 등이 신규 진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진출방법은 직접 사업을 수주하여 진출하는 것과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정책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 이하 UAE),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양곤(미얀마), 메트로마닐라(필리핀) 등 많은 개도국 도시들이 서울시의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 샤르자 교통청장은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협력지원을, 마르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은 2012년 2월 20일 전자정부, 교통시스템, 상하수도 분야에서 협력을 각각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에서 요청했다.

또한, 2012년 9월 20일에는 미얀마의 양곤 시장이 서울 시장과의 면담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분야의 정책 공유를 요청했고, 지난해에는 필리핀 메트로마닐라개발청장은 서울 시장의 필리핀 순방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교통 분야 컨설팅을 요청해 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4대 선도 분야 중 교통은 서울시가 짧은 기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킨 우수 정책분야다. 서울시가 교통 분야에서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책으로는 종합교통관제센터(Transport Operation & Information Service, 이하 TOPIS),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스마트 카드), 버스 중앙차로제, 버스운영관리시스템(Bus Management System, BMS)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에 서울시가 각종 국제행사 및 기구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한 내용을 명기하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아제르바이잔, 뉴질랜드 웰링턴과 오클랜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태국 교통정책본부와 방콕시, 필리핀 마닐라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제르바이잔에 TOPIS 센터를 개관했고, 뉴질랜드의 웰링턴과 오클랜드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운임 정산을

- ⇒ 2005 Sustainable Transportation Award 수상 교통개발정책연구원(ITDP), 미국교통연구원(TRB), 환경보호협회(ED) 공동시상
- ⇒ 2006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혁신정책 우수상
- ⇒ 2007 동아시아 교통학회 우수프로젝트상
- ⇒ 2011 Golden Chariot Awards
- ⇒ 2011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PTx2 지역상(Regional Award)
- ⇒ 2011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PTx2 전시상>Showcase Award)

대행 중이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500대 버스에 카드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수출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해 서울 시장의 필리핀 마닐라 순방 시 메트로마닐라 개발청장의 요청으로 현재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메트로마닐라 교통체계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3. 교통부문 해외진출 세부사례

지난 2012년까지 서울에는 30여 개국, 1천여 명의 도시대표단이 서울시 교통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다녀갔다. 선진 도시 교통 시스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여실히 나타난 결과다. 서울시는 축적된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스마트카드 등 교통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산업계와 함께 세계로 발을 넓히고 있다.

지난 2004년 교통카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오랜 기간 축적된 정책, 서비스 운영 경험은 서울시의 자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정책, 서비스 운영 경험의 수출은 시스템 및 인프라 수출과 연계되어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향후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가. 서울시 '티머니 시스템', 뉴질랜드로 첫 해외 진출

서울시의 선진교통 요금징수시스템(Automatic Fare Collection, 이하 AFC)의 첫 번째 수출은 2008년 이뤄졌다.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Wellington)에 버스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산을 대행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의 교통 시스템 수출사업은 단숨에 웰링턴을 넘어 오클랜드까지 확대됐다. 해당도시에는 '티머니

그림1 UAE 대표단의 서울 교통 시스템 체험



자료 : 디지털타임즈, 2013년 7월 3일

(T-money)'를 사용하는 서울시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으며, 최초로 해외 정산 대행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웰링턴의 버스 400여 대, 유평가맹점 250여 곳, 그리고 오클랜드의 버스 700여 대에 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영 중이며, 뉴질랜드에서 이뤄지는 거래내역들이 매일 한국에 있는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정산 대행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2012년말 까지 뉴질랜드 교통카드 시스템 이용자들의 누적 정산 건수는 1억 2천만 건을 넘었으며, 누적정산금액은 2억 4천만 뉴질랜드달러(NZD), 한화로 약 2천 16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시스템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과 한국스마트카드의 기술력이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이다.

나. 말레이시아 교통 사업에 참여

2011년 3월 시스템을 오픈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주, 버스 결제시스템¹을 구축했다. 말레이시아 사업은 최초 버스 1천100대 공급 이후 추가로 지속적인 사업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또 차내 티켓판매기인 'On-board TVM'의 첫 해외 수출이기도 하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교통 개혁 및 확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교통카드 사업 진출을 통한 말레이

한국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말레이시아를 가다

- 하루 승객 2만명 · 회사 매출 20% 증가... 구간별 차등요금제에 승객들도 환영미주 · 중동에서도 수주 협상 잇따라

이달 초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88층짜리 페트로나스 트윈타워(Petronas Twin Tower) 앞 버스정류장 10여 미터 길이의 줄을 서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버스가 도착하자 모두 빨간색 플라스틱 교통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민 테오 메이씨는 "나이 든 사람들은 버스 요금 낼 동전을 찾다가 버스를 놓치기 일쑤"라며 "카드를 목에 걸고 다니다가 버스가 보이면 바로 탈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 카드는 서울 교통카드와 모양이 흡사하다. 서울시와 LG CNS가 공동 출자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말레이시아 대중교통공사 '프라사라나(Prasarana)'에 공급한 선불 교통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림2 쿠알라룸푸르 선불교통카드 공급 사례



자료 : 조선비즈, 2011년 8월 25일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는 지난 2월 쿠알라룸푸르에 버스 교통카드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전과 지폐로 버스 요금을 내던 쿠알라룸푸르에서 티머니 시스템의 '약효'는 즉각 나타났다. 하루 25만 명 수준이던 버스 이용객이 한 달 만에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자가용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골머리를 앓던 시(市) 당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프라사라나에서 버스회사 래피드케이엘(RapidKL)을 총괄하는 책임자 다트 모하메드 하즐란(Hazlan)씨는 "버스 이용객이 급작스럽게 늘어나 버스 500여 대를 추가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는 지난 2월 쿠알라룸푸르에 버스 교통카드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전과 지폐로 버스 요금을 내던 쿠알라룸푸르에서 티머니 시스템의 '약효'는 즉각 나타났다. 하루 25만 명 수준이던 버스 이용객이 한 달 만에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자가용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골머리를 앓던 시(市) 당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프라사라나에서 버스회사 래피드케이엘(RapidKL)을 총괄하는 책임자 다트 모하메드 하즐란(Hazlan)씨는 "버스 이용객이 급작스럽게 늘어나 버스 500여 대를 추가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버스 회사도 매출이 확 늘었다. 버스 이용객은 10% 늘었지만 수입은 20% 증가했다. 일부 기사들이 버스비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몰래 챙겼던 금액이 제대로 수납된 것이다. 승객들도 혜택이 많다. 학생 네로시니(Nero shini:19)양은 티머니 카드를 이용하면서 버스비가 줄었다. 이전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2링깃(760원)을 내야 했지만 새로 도입된 티머니 시스템은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한다. 네로시니는 집에서 학교까지 세 정거장밖에 되지 않아 요금을 1링깃 정도만 낸다. 버스비가 절반으로 내린 것 같은 효과다. 장거리 이용객의 요금은 최대 3링깃이다.

카드 발급과 충전은 우리나라보다 더 간단하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가판대나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거나 요금을 충전한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버스 내에서 카드 발급과 충전이 가능하다. 티켓 자동판매기를 버스 기사 옆에 설치해놨기 때문이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서정형 해외사업팀장은 "쿠알라룸푸르에는 한국처럼 가판대가 없고, 편의점과 제휴하는 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카드자판기를 버스에 설치했다"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 중동 · 미주에도 한국 교통카드 수출 추진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는 지난 2008년부터 뉴질랜드의 웰링턴과 오클랜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버스 운영과 교통카드 시스템을 공급했다. 지난달에는 남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1만2000대의 버스 운영 시스템을 3억달러(3200억원)에 수주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서정형 해외사업팀장은 "이번 수주는 보고타에서 배운 것에 국내 기술 및 운영 경험을 보태 재(再)수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타 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콜롬비아의 항구도시 카르타헤나에서도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을 논의 중인 도시는 이 밖에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아부다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인도의 뭄바이와 델리,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등이 있다.

자료 : 조선비즈, 2011년 8월 26일, 한국 교통카드 시스템 해외서 호평 미주, 중동 등 수주 협상 잇따라

시아와의 추가 협력사업 연계가 앞으로도 기대되는 이유다. 차내 티켓 판매기, 버스 승하차 단말기와 운전자 조작기 등 약 1천 600여대의 단말기가 공급되어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 ‘벤치마킹’ 대상이던 보고타로 7년 만에 역(逆)수출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교통공사(TransMilenio S.A.)가 발주한 콜롬비아 AFC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은 서울시의 교통 시스템 해외 진출에 있어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04년 버스 중앙차로와 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서울시가 대중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당시 참고로 했던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콜롬비아 보고타였다. 불과 7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본보기였던 도시에 우리가 역수출하는 전환기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보고타에서 배운 것에 국내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태 재수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당시 일부 언론은 “보고타에서 일했다”고 보도할 정도였다. 남미지역 첫 진출이기도 한 보고타 사업이 성공할 경우 콜롬비아의 다른 도시에 도 추가 수주가 가능할 만큼 주요한 사업이기도 했다. 보고타 사업은 LG CNS가 수주를 하여 2011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스마트카드는 LG CNS에 버스 단말기 등을 공급한 바 있다.

라. 태국에 교통 전략 컨설팅...협력 사업으로 확대 기반 마련

태국의 경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태국 교통부산하 교통정책본부(Office of Transport and Traffic Policy and Planning, 이하 OTP)가 발주한 방콕시의 버스, 지상철,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통합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이다. 2012년 말 수주한 이 사업은 입찰준비, 업체선정, 시스템 통합 및 운영 등 48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시는 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정책 자문을, 한국스마트카드사는 통합정산센터 구축방안과 교통카드의 유통확산 전략을 컨설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사업 역시 교통카드 사업 진출을 통한 태국과의 추가 협력 사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컨설팅 단계부터 시와 민간이 면밀한 공조 속에 이뤄지고 있다. 태국 OPT는 2013년 1월 서울을 방문, 교통시스템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4. 시사점

가. 세계가 인정한 서울교통시스템

제59회 세계대중교통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Transport, 이하 UITP)² 세계총회는 서울시 교통시스템의 우수성이 입증된 대표적 사례다. 2011년 4월 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아·태 지역 ‘Best Political Commitment Award(최고정책상)’과 ‘PTx2 Showcase Award(모범사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최고정책상’은 총 49개 우수 프로젝트와 결합을 벌인 끝에 수상했다. 2004년부터 서울시내 약 100km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성공적으로 설치, 운영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서울역 환승센터 구축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그동안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또 ‘모범사례상’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최첨단 IT 기술과 대중교통을 잘 접목해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킨 ‘서울시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시스템으로서 인정받은 것이다.

서울시의 UITP 수상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버스환승센터, 버스정보시스템, 버스체계 개편, 대중교통통합요금제, 버스준공영제 등 교통개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및 시스템 첨단화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온 서울시의 노력과 성과를 세계 교통관계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세계적 교통선진 도시로서의 서울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했다. 서울시는 세계총

¹ Cashless Bus Ticketing System. 현지 업체인 ‘Solsis’와 컨소시엄으로 수주

² 세계대중교통협회는 1885년에 설립돼 92개국 3천400여 기관이 참여하는 명실상부 교통분야의 세계 최대 기관. 격년으로 개최되는 세계총회는 각국 도시 대표와 업계 학계 등 교통전문가 9천 여 명이 참석하는 이 분야 최대 규모 행사

그림3 서울시 교통카드 홍보



회를 통해서도 서울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 서비스 개선, 교통운영 효율화 등은 물론, 이해당사자와의 협력과 참여를 무리 없이 이끌어 서울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리더십과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참가국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내기도 했다.


서울시 교통카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시대에 맞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2012년 근거리 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이하 NFC) 포럼³ 주관으로 모나코에서 열린 ‘NFC 글로벌 경쟁(Global Competition) 2012’에서 서울시의 ‘모바일티머니’가 최우수 고객 편의(Best User Experience)와 비즈니스(Best Business Viability)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세계 22개국 67개 서비스와 경쟁해 총 3개 부문 중 2개 부문을 석권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모바일티머니’는 서울 교통카드인 티머니

카드를 NFC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휴대전화 티머니’를 말하며, 한국스마트카드가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곧바로 교통카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나. 서울 교통시스템 수출의 미래 ‘민관협력’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울시 교통 시스템은 뉴질랜드 웰링턴과 오克兰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콜롬비아 보고타, 태국 방콕 등 이미 진출에 성공해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말 그대로 서울시 교통 시스템이 ‘외화벌이’에 한창인 모습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능형 교통체계, 교통카드 시스템 등 국내의 우수한 교통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도록 업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다. 2009년 제주 한-아세안 정상회담, 2011년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그리고 같은 해 러시아 모스크바 시장 방한 등 정책적인 협력관계가 교통산업 협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를 볼 때 교통 시스템의 해외진출에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관련 국제기구,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서울의 성공적인 교통정책 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증가 및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도시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에 의하면 2013년 기준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8조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 부문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도시개발 시장은 블루오션임에 틀림없다. 

이 글은 서울시 교통카드 정책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 해외사업팀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료제공에 협조해 주신 ㈜한국스마트카드 권오중 해외사업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문헌

- 한국일보 (2014년 2월 17일 A12면)
- 파이낸셜 뉴스 (2014년 2월 17일 O27면)
- 조선비즈, 한국 교통카드 시스템, 해외서 호평, 미주, 중동 등 수출 협상 잇따라. (2011년 8월 26일)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 ㈜한국스마트카드 홍보자료(<http://www.koreasmartcard.co.kr/>)
- 국제도로교통박람회 ROTEX2011(<http://www.road-traffic.com/index.asp>)

³ NFC 기술의 국제적 표준정립을 위해 2004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전 세계 약 140여개 회원사(칩 및 모바일 제조사, 이동통신사, 연구기관 등)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NFC 장비 및 통신 국제 표준규격 개발 및 인증 업무와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NFC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